



지상파 DMB 서비스 전국 확대

그 동안 부산·광주·춘천·서귀포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KBS의 지상파 DMB 실험방송이 대전·대구·전주·제주시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손안의 TV'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KBS가 추가로 신청한 지상파 DMB '실용 화시험국'을 9월 1일자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수신기를 사고도 DMB를 보지 못하던 지방 시청자들도 지상파 DMB를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실험방송은 KBS 이외의 타 방송사 비디오 1개 채널도 송출토록 하는 허가 조건이 부여되어 전국 8개 지역에서 다양한 콘텐츠 접할 수 있게 된다.

KBS 지상파 DMB 서비스 지역 확대로 서비스 개시 8개월 만에 143만대를 돌파한 지상파 DMB 단말기 판매도 탄력을 받아 연내 2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어 지상파 DMB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전파방송기획단 방송위성팀
(02-750-2434)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확정

내년 상반기 중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유럽·미국 등 해외로 수출되는 단말기의 필드 성능을 국내에서 직접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M-1(Mobile No.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 Mobile Field Test-bed, 구 모바일특구) 구축계획'을 지난달 29일 확정·발표했다.

휴대폰은 '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IT 수출의 25.2%(258.2억달러)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효자품목이다. 그 중 국내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GSM 등 분야의 수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단말기가 해외 현지장에 적합한지를 현지에서 직접 테스트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신규모델의 개발과 출시에 앞서 이러한 현지 테스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장기적인 해외 체류기간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휴대폰 단말기의 성능을 국내에서 사전점검(Pre-test)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통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휴대폰 단말기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MFT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축될 MFT는 일반적인 실험실 수준에서 진보된 시험시설로 차폐되지 않은 공간상에서 휴대폰 단말기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다. 유럽, 미국 등에서 실제로 서비스되고 있는 이동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현지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정보통신정책본부 지식정보산업팀
(02-750-2344)